

**온종일 마을이 찐놀이터,
자연에서 아이들과 몸으로 느끼는 행복을 배우다
-예비사회적기업 (주)자연아놀자-**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신 영 현

창업 3년만에 어느새 전국에 80여개의 밧줄놀이터를 설치하고 누적 참가인원만 1만여명에 이를 만큼 아이들과 숲을 통한 '찐놀이'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자연아놀자.

남편과 결혼 후 세 명의 아이를 키우며 친정엄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다가 10년 전 고향인 북면 양곡리로 귀촌했다는 유수진 대표는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들과 놀다가 '자연아놀자'를 창업하였다.



"어쩌면 그때 아이들과 시골살이를 결심했던 것이 제 인생의 커다란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2가 된 첫째 딸과 쌍둥이 아들 둘을 낳고 천안 시내에 살다가 고향인 북면으로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앞으로 직업같은 건 다신 못가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나 잘 키워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들판과 숲을 누비며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놀다 보니 자연에서 느끼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놀러갔던 밧줄놀이 터에서 유난히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걸 제대로 배워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고. 마침 집 앞에만 나가면 어디든 산과 들판인 북면은 밧줄놀이를 하기에 적격이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작은 욕심에 본격적으로 밧줄놀이를 배우고 자격을 따고 나니 마침 숲놀이를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20년 산림청 지원사업 그루경영체에 선정돼 드디어 2020년 8월에는 (주)자연아놀자라는 법인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 때부터 단 3년만에 2021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초기창업팀) 및 2021년 한국중부발전이 선정한 사회적기업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022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그 동안 (주)자연아놀자가 펼쳐온 주요 사업으로는 매월 열리는 ‘자연아놀자 마을생태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연간회원제 프로그램과 마을을 놀이터삼아 온종일 계절별 시골놀이를 만끽하는 찐놀이 프로젝트 등이 있다.

또한, 숲밧줄놀이, 생존 체험 및 숲체험, 숲밧줄 놀이터, 농촌체험 등을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충남은 물론 전국의 유, 초등학교에 숲밧줄 놀이터를 설치하고 트리클라이밍, 생태놀이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 경영체를 통하여 숲관련 역량강화를 통해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트리클라이밍, 밧줄놀이 지도자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10여명의 외부강사진을 구축해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천안시 북면 양곡리에 위치한 솟대마을에서 「자(마을에서)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 후 가장 보람있는 일로 "함께 아이들과 놀아 보자고 해서 실컷 놀기만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스러워 하시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유대표는 여전히 사업초창기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초기창업자의 기반을 쉽게 다지는데 노력하여 현재 별 다른 난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으로는 고령화로 활기를 잃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여 「마을에는 활력을, 도시 아이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시골정서를 나누는 '자놀자 마을생태학교」를 더욱 견고히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밧줄과 놀이로 아이들을 만나 즐거움을 선물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한 유대표는 특히, 지역의 경력단절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